

47. 난소암에서의 OC-125 단세포군항체를 이용한 방사면역 신티그라피

원자력병원 핵의학과

임 상 무·홍 성 운

산부인과

박상윤·이의돈·이경희·박기복

암조직에 대한 항체를 진단에 이용하고자 하는 연구는 꾸준히 계속되어 왔으며, 최근 단세포군항체 생산법의 개발을 계기로 괄목할만한 진보를 보였다. I-131로 표시된 선암의 특이항원에 대한 단세포군항체 OC-125의 F(ab')₂부분 2~3 mCi로, 수술에 의하여 난소암이 확인된 8명의 환자에서 방사면역 신티그라피를 시행하였고, ^{99m}Tc-MDP 및 ^{99m}Tc-phytate에 의한 영상을 얻었으며, CA-125의 혈청농도, 복부방사선단층촬영 및 수술소견을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CA-125 혈청농도는 5.0~1892 μ/ml이었으며, 혈청농도와 방사면역 신티그라피의 소견과는 상관관계는 없었다.

2) 방사면역 신티그라피상 종양 대 주변방사능의 비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증가하였으며, 주사 7일 후에 1.72±0.69이었다.

3) 복부에 퍼진 경우, 방사선 단층촬영 보다는 방사면역 신티그라피의 예민도 및 특이도가 좋았다.

이상에서 단세포군 항체 OC-125를 이용한 방사면역 신티그라피는 난소암의 진단 및 치료 후의 경과 관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48. α-Fetoprotein에 대한 단세포군항체의 각종 방사성동위원소 표지후 방사면역 신티그라피

원자력병원 핵의학과

임 상 무·홍 성 운

단세포군항체의 방사성동위원소 표지는 방사면역 신티그라피에서 중요한 과정중의 하나로, 사용되는 방사성동위원소 및 표지방법에 따라 면역반응능의 변화 및 특이활성이 달라진다.

연구자들은 1988년 9월부터 1989년 4월까지 간암으로 진단된 환자를 대상으로, α-FP에 대한 단세포군항체를

I-131, I-123, In-111로 표지하여 방사면역 신티그라피를 시행하였다.

I-131은 베타선 때문에 대량의 방사능을 사용할 수 없었으나, 주사후 5일 또는 7일의 지연 영상에 적합하였다.

I-123은 적당한 에너지의 감마선만을 내어, 비교적 대량의 방사능을 이용할 수 있었으나, 반감기가 비교적 짧아 지연영상의 획득에는 부적합하였다.

In-111은 감마선의 에너지 및 반감기가 방사면역 신티그라피에 적합하였다.

49. 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병에서의 ¹¹¹In-oxine Platelet Image

연세대의 진단방사선과

김 선 희·박 창 윤

동위원소를 이용한 혈소판 영상은 임상적으로 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병, 혈전을 형성하는 process, 심부 정맥혈전증, 폐동맥 색전증에서 이용되고 있고 새로운 isotopic agent로써 2.8일의 짧은 반감기를 가지고 혈소판과 효과적으로 결합하는 Indium이 이용되고 Thakur 등에 의해 Indium과 혈소판 결합에 관한 기전이 소개된 이래 많은 연구가 되고 있다.

최근 저자들은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에서 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병으로 진단된 4명의 환자에서 비장 절제술을 시행하기전 비장의 sequestration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¹¹¹In-oxine을 이용하여 10초 간격으로 총 60 frame의 dynamic image와 2시간, 5시간, 24시간 혈소판 영상을 얻었고 spleen의 uptake 정도와 비장 절제술 여부결정 그리고 비장절제술후의 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49. 혈청 비타민 B12 검사의 진단적 유용성

서울의대 내과

최윤호·이경한·이범우

문대혁·이명철·고창순

비타민 B12 검사의 진단적 유용성을 살펴보기 위해 1988년 8월부터 12월까지 서울대학교병원 내과 외래 또는 입원화자중 혈청 비타민 B12검사를 시행한 230예의 환자중 추적가능한 75예에 대해서 후향적 조사를 하였